2024-12-04_티디바인

상태	완료
분류	식품제조기업
검증일	2024년 12월 4일
작성일	2024년 12월 12일 ~ 2024년 12월 14일
작성	@Lahyun (lala)
참여	@Eunyoung Lee @Sangeun Choi @유희찬

- 1 조사결과
- 2 니즈분석
- 3 현황분석
 - [1] 기업현황-제품현황
 - [2] 생산관리-문서관리
 - [3] 원료투입-로스관리
 - [4] 재고관리-이력관리
 - [5] 출고관리-반품관리
- 4 원본보기 (wt. 클로바 녹음)

(조사목적) 본 조사는 고객사의 Food4Chain 솔루션 적합도를 파악하고, Beta 2.0을 기획/설계하기 위해 진행됨

(조사대상) 티디바인 신언호 이사

(소요시간) 1시간 내외 인터뷰 진행

1 조사결과 ♂

€ 조사 결과, 10개사 중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의사항과 예상문제가 있다.

조사결과	솔루션 적합도 10개사 중 0순위 생산관리 > 재고관리 > 원가관리 순 니즈 존재 (원물 특성상 로스관리까지는 어려움)
제안방향	초기 도입 : 생산관리-재고관리 (출고전표에서 반품 처리 논의 필요) 이후 도입 : (채널별 데이터 집계 거능, 채널별 데이터 연동 기능 등)
기대효과	(관리직) 생산관리-재고관리 (엑셀 작업 최소화) (경영진) 생산관리-재고관리-원가관리 (엑셀 작업 최소화 + 원가관리 부분 확인 필요)

예상문제

- 기존 엑셀 기반 프로세스와의 간극
- ✔ 예상문제 & 대응방안

예상문제

- 생산보고서가 생산작업일지인지 확인 필요 (현 개발된 로직과 가장 상이함)
 - ㅇ 하루에 생산한 제품을 몰아서 쓰고 있음
 - 생산보고서에 BOM 기반의 원료투입량이 아예 없음
 - 생산보고서를 작업지시용으로 쓰시는지 확인 필요
- 일별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어 현재 개발된 구조와 상이함 (제품팀 논의예정)
- 부재료는 소비기한 대신 제조일자로 적고 있어서 현재 개발된 구조와 상이함

대응방안

- 각 부서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
- 기존의 프로세스와 유사한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자연스러운 전환 유도
- 출고기록 누락 및 데이터 관리 문제
- ✔ 예상문제 & 대응방안

예상문제

- 출고 과정에서 기록 누락이 종종 발생하며,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입력 누락 문제 지속 가능
- 이로 인해 재고 데이터 불일치 및 고객사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

대응방안

- 솔루션 상 입력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?
- (향후) 바코드 기반 출고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고 프로세스를 간소화 및 자동 화
- 로스관리에 대한 고객사의 낮은 니즈
- ✔ 예상문제 & 대응방안

예상문제

- 인터뷰에 따르면 고객사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, 현 재로서는 기록 프로세스도 부재
- 로스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원재료 투입 효율성, 공정 개선 가능성 등 장 기적 이점을 놓칠 가능성
- 로스 데이터가 없으면 제조원가 분석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이 어려울 수 있음

대응방안

- 초기에는 로스 관리 기능을 의무화하지 않고, 기본적인 재고 및 생산 관리 기능에 집중하여 도입 후 서서히 로스 관리 기능을 확장
- 로스 관리 기능을 자동화하고, 고객사의 기존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입력만으로 작동하게 설계
- 주요 로스 지표(예: 알룰로스 로스율, 라벨링 불량 등)를 자동으로 산출하여 고객 이 이를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

- 고객사에게 로스 관리가 단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,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
 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
- 로스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비용(원재료 낭비, 공정 비효율)과 운영 리스크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제공
- 로스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PI(주요 성과 지표)를 제안하고, 이를 통해 성과 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리포팅 기능 제공
- 고객사의 기존 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스 관리로 절감 가능한 비용과 효율 개 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제안

2 니즈분석 ∂

단기적 니즈는 시스템 기반 생산-재고 통합관리이며, 로스관리에 대한 니즈는 없는 것으로 보임

고객니즈 "시스템 기반 통합관리 + 생산관리-문서관리의 효율화"

엑셀로 관리 안하고 하나로만 다 통합해서 관리만 되면 좋겠다. 불량으로 반품이 된 것도 반영되면 좋겠다.

페인포인트 "원부자재 시트 가서 차감하고 생산 재고시트 가서 재고 올리고 출고되면 또 그거 빼고... 정신이 없다."

모든 작업이 엑셀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 부담이 크며, 간혹 출고되었음에도 기록이 누락되는 상황 발생 중

2 고객니즈 "재고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"

재고시트에 있는 재고와 현물 재고가 일치하면 좋겠다.

페인포인트 "납기일이 밀리고 판매를 못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."

현재로서는 전산과 현물재고가 안 맞아서, 원료는 긴급 발주하고, 제품은 납기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중

3 고객니즈 "없음"

추후 원재료(알룰로스 등)는 어려우나 포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로스는 관리 가능

페인포인트 "없음"

원물 특성 상, 로스관리가 중요하지 않음

3 현황분석 ♂

[1] 기업현황-제품현황 🔗

기업규모	• 총 13명 (스탭 5명, 아웃소싱 4-5명, 물류 3명)
연매출액	• 1억 미만 vs 10억 미만 vs 30억 미만 vs 50억 미만 (확인 필요)
제품유형	• 당류 가공품, 견과류 가공품, 액상차
제품종류	• 약 26종 이상 (일부 베리에이션 제품 포함)
유통라인	• B2C 개인 소비자 중심 (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)
생산라인	• 수작업 중심 vs <u>기계화 중심 (교반기 사용, 일부 공정 자동화)</u>
문서관리	• 엑셀 기반으로 문서 관리
해썹관리	• (확인 필요)

[2] 생산관리-문서관리 🔗

현장환경	• 공용 노트북을 활용하며, 모바일 관리에 대한 생산팀장의 거부감은 없음
작업지시	• 단톡방 지시 vs 종이 전달 vs <u>현장 지시 (생산팀장이 주가계획 바탕으로 하달)</u> vs 시스템 사용
작업방식	• 주간 생산계획 기반, 긴급 건은 당일 추가 작업
생산공정	• 공정이 단순한 편으로 대부분 교반과 믹싱으로 구성
생산구조	OEM 제품도 생산하며, 하루 캐파 초과 시, 반제품으로 보관 후 라벨링을 나중에 진행하기도 함
불량비율	• 포장 공정(라벨링)에서 불량 발생, 상세 비율은 확인 불가
문서관리	• 생산보고서는 생산팀장이, 재고시트는 품질팀장이 담당 (모두 엑셀 기반)

원료공급	 주요 원료는 국내산이나 일부 중국산 도입 메인 원재료인 알룰로스는 주 1회, 3-4톤 정도씩 구입
원료투입	예를 들어 알룰로스가 BOM보다 10g 더 들어갔다던지 이런 파악은 어려운 상황 다만 브릭스 같은 걸로 당도 체크만 하고 있음
로스유형	 (원료) 알룰로스 이송 과정에서 발생 (탱크 잔여물, 호스 잔여물) + 분말 원료에서 미분 로스 발생 (제품) 라벨 포장에서 발생하는 설비 이슈로 인한 로스
수율/로스	수율이 중요하지 않음 로스 기록 프로세스 없음
생산중단	• (확인 필요)

[4] 재고관리-이력관리 🔗

재고보유	• 일부 오버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장기 보관 제품이기에 큰 문제는 없으며, 재고를 보유하 는 편
재고조사	 월 1-2회 정도 진행 (행사 전 추가 조사)
회전일수	• 생산계획의 약 1.5배 정도의 원재료를 보유 (정확한 회전일수는 알 수 없음)
유통기한	• 알룰로스 원료는 2년, 원물 포함 제품은 1년
이력관리	• 이력관리 도입 vs 이력관리 미도입 (제조일자를 로트번호로 활용)

[5] 출고관리-반품관리 🔗

출고관리	• 엑셀 기반 수동 관리, B2C 제품 출고 시 누락 및 재작업 발생
판매관리	• (확인 필요)
반품관리	• 불량 관리 및 반품 기록 체계 없음

4 원본보기 (wt. 클로바 녹음) ♂

✔ 클로바 녹음기록 확인

에코테크 00:19

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

고객사 00:21

많지는 않습니다. 거의 한 가지 제품에서 약간 베리에이션된 제품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조하는 거는 거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당류 가공품이랑 견과류 가공품, 액상차 요 정도

에코테크 00:35

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설명회 때 잠깐 오셨었잖아요.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원부재료 재고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 그다음 로스 관리 그다음에 출고 이런 거 등등 혹시 기존에 지금 쓰고 계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?

고객사 00:53

저희가 원래 ERP를 도입을 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따로 써놓고 이제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또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거 하려던 걸 이제 중지를 하고 그냥 저희는 도화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

에코테크 01:09

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산 관련해서의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트 트래킹이라든가 이런 거 시스템인데 사실이게 매입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회계관리는 사실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네. 크게 문제는 없으시잖아요?

고객사 01:26

네. 일단은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는 회계나 그런 관리는 없는 건가요?

에코테크 01:32

탑재가 안 돼요.

퓨처센스 01:35

생산 관리 재고 관리 로스 관리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고객사 01:40

네네네. 좋습니다.

퓨처센스 01:44

그럼 제품은 이런 건 당일 생산이 되나요? 아니면 좀 주기를 가지고 며칠 동안 생산이 되는건가요?

에코테크 01:50

잠깐만 우리 시스템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까요?

고객사 01:53

네네. 네네네네.

퓨처센스 01:56

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 상황이 먼저 좀

퓨처센스 02:00

듣고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

고객사 02:03

네 저희 일단은 **거의 당일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.**

퓨처센스 02:13

반제품도 있나요?

고객사 02:15

있습니다. 이제 있는데 라벨이 안 붙어 있는 상태로 반제품으로 조금 보관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

퓨처센스 02:23

제품 예로 들면 어떤 게 있나요?

고객사 02:26

OEM 받는 제품들이 조금 있고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발주 물량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**하루 캐파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약간** 라벨을 좀 나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제품 상태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을 한 번에 불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경우가 종 있긴 있거든요.

퓨처센스 02:50

그러면 거의 제품인데 나중에 라벨링을 하신다는 얘기군요?

고객사 02:53

맞아요. 네네네네네. 네

퓨처센스 02:58

실제 이거를 만들 때 유자청 만들 때 쓰시거나 그런 식의 반제품으로는 안 쓰세요? 제가 알룰로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

고객사 03:10

약간 그 원물 느낌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제품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이게 이제 왜냐하면 **유자를 다른 공장에서 알룰로** 스로 절여놓은 유자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자청 생산할 때 그 당 저림 되어 있는 거에다가 또 알룰로스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.

에코테크 03:32

그러면 원물이 원물이 사실 원물 개념보다는 **반제품을 갖고 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인가요?** 원물이 뭐예요? 그러니까 타 회사에서 만들어진 알로스인가요?

고객사 03:47

그 알루로스 자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교반을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

에코테크 03:53

그러니까 원물이 타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

퓨처센스 03:57

네 그러네요. 네

퓨처센스 04:00

혹시 이사님 그 생산 일부나 업체마다 이 용어가 좀 다른데 생산 일부 대장 작업 일지 수불부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걸 볼 수 있을까요?

고객사 04:10

네. 볼 수 있어요.

퓨처센스 04:17

너무 아이디어 아이디어 너무 간편하게 잡으셨네.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간편한게 잘해 보이지

고객사 09:16

저희 수불부는 일단 밑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

퓨처센스 09:24

이거는 원료수불부네요? 전일 재고량이라 ..

고객사 09:32

그거는 재고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. 부자재랑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.

퓨처센스 09:37

이거 저희가 갖고 가도 되는 건가요? 이걸 재고 시트라고 ..

퓨처센스 09:57

생산 보고서도 일간으로 쓰시고

퓨처센스 10:11

생산일보에 제품을 몰아서 쓰시네요?

고객사 10:14

저희가 지금 라인이 2개라 하나는 견과류하고 하나는 당뇨 가공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

에코테크 10:21

그러면 이게 bom이 26가지인건가요?

고객사 10:23

더 될 수도 있어요. 더 될 수도 있어요

에코테크 10:26

근데 이제 이게 메이저 이 메이저는 위에 거고 이제 밑에 이거 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소량으로 들어와요?

고객사 10:32

네 소량으로 들어갑니다. 네

퓨처센스 10:46

재고 시트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하시는 건가요?

고객사 10:52

그냥 당일 생산할 때마다 출고되는 양을 그 엑셀로 관리하고 있어요

퓨처센스 10:59

그러면 저 여기 칠판 잠깐 넘어가면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그때 아이데이션이랑 도입 논의하셨던 것 같아서

고객사 11:09

뭐 그렇게 이거는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그냥 떠올랐던 거 어떤 식으로 좀 플로우를 짜면 좋을까 해서 .. 아마 근데 ERP 쓰는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긴 해가지고

퓨처센스 11:24

여기 물류에 불량이 있는 게 만약에 납품을 했다가 빠꾸가 되면 좀 재고에 반영을 하고 싶고 로스를 잡고 싶어서인가요?

고객사 11:32

맞아요. 글쎄 그냥 기본적인 ERP 기능 정도로만 쓸 수 있는 그 내용들이긴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

퓨처센스 11:50

그럼 이 수불부 재고 시트랑 생산일보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다 다르나요?

고객사 12:02

생산 보고서에 생산팀장이 당일에 이제 생산된 양들이랑 이슈 같은 거 정리해서 같이 올려주시고, 이런 재고는 저희 품질팀장님이 하고 있어요.

고객사 12:17

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 ERP를 쓰는 목적 사실 **엑셀로 관리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거 하나로만 다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사실 그렇게만 되면 좋겠거든요.** 다른 거는 필요 없으니 사실

퓨처센스 12:30

그러고 저희가 기존에 작업 개발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향이기는 한 것 같아서 이따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

그러면 재고 시트는 원료단 하나 완제품 하나 이렇게 작성하시나요?

고객사 12:48

완제품도 따로 있고요. 네

퓨처센스 12:58

그럼 생산계획은 주간이랑 일간이랑 월간 중에 어떻게

고객사 13:05

거의 주에 한 번씩

퓨처센스 13:06

주에 한 번씩 그럼 당일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전날 오더를 내리시는 건가요?

고객사 13:17

그 계획에 주에 짜는 계획에 따라서 거기 움직이고요. 이제 긴급건 같은 경우만 그 당일에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퓨처센스 13:26

그럼 생산 현장에는 어떻게 전달을 하세요?

고객사 13:31

생산팀장이 올라와서 같이 회의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생산팀장이 가서 현장에 이제 하달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퓨처센스 13:49

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**원료에 대한 전일 재고량이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?**

에코테크 14:03

현물하고 기록하고 얼마나 일치하냐는 거죠

고객사 14:08

좀 안 맞는 지금 **현재로서는 안 맞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. 완제품도 마찬가지고**

퓨처센스 14:12

그러면 이게 맞지 않았을 때 실제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?

고객사 14:21

일단은 긴급하게 원재료가 만약에 있는 줄 알고서 계획을 짜놨는데 없다고 하면 이제 긴급하게 또 발주를 하고 .. 납기일이 밀리고 판매를 못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일들이

에코테크 14:33

판매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?

고객사 14:35

제품이 없으면 이제 출고를 못하니까

에코테크 14:37

그러면 아까 이제 원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재고 일수를 보통 얼마나 가지고 가세요?

고객사 14:42

저희가 보통 재고 일수로 친다기보다는 저희가 생산하는 계획에 한 1.5배 정도는 가져가려고 해요

에코테크 14:56

그러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발주를 내는 거예요?

고객사 15:01

양이 많이 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알룰로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거의 주에 한 번씩, 주에 한 3~4톤 정도씩

퓨처센스 15:14

예를 들어서 이 유자청을 오늘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 하면은 거의 100개 딱 맞게 생산이 되나요?

고객사 15:24

더 나옵니다.

퓨처센스 15:25

오버 생산이 되세요

에코테크 15:30

이거 쉽게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고를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

고객사 15:35

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판매되는 양보다도 곱하기 몇 배수로 해서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긴해요.

에코테크 15:44

그럼 판매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사실 블랙티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계절 영향을 안 타기 때문에

고객사 15:51

네 유자청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시즌 상품들이 조금 있어요

에코테크 15:56

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결국은 아주 일정하게 판매량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

고객사 16:05

거의 예측이 돼요.

퓨처센스 16:10

그러면은 로스 단에서는 주로 어떤 공정에서 로스가 발생하세요?

고객사 16:17

일단은 원물 자체를 저희가 이제 알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1톤짜리 탱크를 받아서 이제 뭐야 관? 호스 같은 거 연결해서 교반기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방식인데 거기에서도 일단 항상 로스가 좀 나긴 나고 교반할 때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.

고객사 16:44

호스에 묻어나는 것도 있고 그 호스에서 다 못 빨아들이는 경우 잔여물도 있어요.

고객사 16:47

근데 어차피 저희가 대상구를 쓰는데 거기서도 이제 **원래 정량보다 조금씩 퍼센트를 더 넣어주는 게 있긴 있어서**

퓨처센스 16:57

그럼 로스를 떠올리시면 거의 메인 원재료인 알룰로스 로스가

고객사 17:05

거의 네 그거랑 이제 뭐야 **스테이얼 배당체나 에리스리톨 같은 거는 이제 분말식인데 이게 워낙에 좀 되게 분자가 작아서 이렇게 붓거나** 할 때도 날라가는 로스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.

퓨처센스 17:24

여기 혹시 괄호의 "제"는 제조일 유통기한이 없는 제조일로 대신 쓰신 건가요?

고객사 17:34

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. 거기 원료의 제조일을 아마 써놓은 것 같아요.

에코테크 17:43

그러면 로스는 원재료 투입 그다음에 공정상의 미본 때문에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고, 생산쪽 불량 로스는 불량도 많이 나나요?

고객사 17:56

특히 **라벨 감는 공정에서 조금 포장해서 좀 많이 나긴 해요.**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설비에 문제가 조금 크다 보니까

퓨처센스 18:12

사실은 내용물의 분량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

고객사 18:15

거의 없습니다.

퓨처센스 18:26

그러면 로스 아까 알룰로스에서 좀 가장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걸 기록하시는 프로세스가 있으신가요?

고객사 18:34

아니요. 딱히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**원물이랑 실제 품목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율이랑 계산을 해보면 로스율이 막 엄청나게**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서

에코테크 18:56

결국은 그럼 그걸 수율로 감안해서

고객사 18:59

거의 그런 식으로

퓨처센스 19:15

재고 조사는 월 말에 이루어지나요? 아니면 특정 이벤트마다 하시나요?

고객사 19:21

큰 행사가 있기 전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월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정도

퓨처센스 19:40

그러면 지금 이거 엑셀로 관리하실 때는 로트 번호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?

고객사 19:47

저희는 그냥 제조일자를 로트 번호로 쳐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어요.

퓨처센스 20:03

소비 기한이 되게 길 것 같아요.

고객사 20:06

네 알룰로스 같은 경우는 2년이고, 원물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

에코테크 20:15

그게 유통기한에 대한 이슈는 없네요.

고객사 20:19

그렇죠 크게 없습니다. 크게 없어요. 그전에 다 이제 거의 다 소진이 잘 돼서

퓨처센스 20:24

그럼 그 알룰로스 원료를 한 업체에서 받아보세요. 아니면 여러 업체에서

고객사 20:29

최근에는 국내 것만 받았는데 국내 것만 받고 있다가 최근에는 중국산 것도 받아요.

에코테크 20:37

삼양사에서 많이 봤나요?

고객사 20:39

저희 대상이에요. 대상 네 국내 거는

퓨처센스 20:56

그러면 혹시 생산계획 아까 여쭤봤는데 오버해서 생산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.

그런 생산계획과 생산실적을 비교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?

고객사 21:12

관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나오면 더 나왔나 보다

퓨처센스 21:22

여기는 과생산이 크게 큰 문제는 아니에네요?

고객사 21:24

네, 기한이 조금 길어서

퓨처센스 21:37

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투입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는 수율 차이라고 해봤자 이게 기계에 끼는 거니까 그게 뭐 하루에 뭐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런 류의 이슈는 없겠네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는 예를 들면 고기가 몇 킬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아

에코테크 22:06

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도 안 들어가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가거나 조금 더 덜 들어가거나 그런 그런 이슈들

고객사 22:16

있을 것 같긴 한데 파악이 안 되죠.

퓨처센스 22:22

그거 파악은 어려우신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만드는데 알룰로스가 10g 더 들어갔다 이런 거를 체크해서 확인하고 이러기는

고객사 22:31

그렇게는 쉽지가 않고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브릭스 같은 걸로 특징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

퓨처센스 22:57

그러면 ERP 도입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엑셀 업무를 좀 자동화해서 맞아요. 그 직원분들이 그럼 어떤 업무를 대신 더 하길 원하셨던 그런 게 있나요?

고객사 23:10

지금 이제 하는 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입하려고 했던 게 재고 같은 게 워낙 이제 나가는 업체도 조금씩 많아지고, 가끔 가다가 뭐야 출고가 됐는데 기록이 누락된다거나,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재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하도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.. 그래서 이제 원재료랑 부재료도 우리가 이만큼 재고를 가지고 있거나 출고를 하면은 원부자재에 대한 관리도 같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또 다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. 한 번에 보는 게 그래서 원부자재 시트 가가지고 차감하고 그다음에 생산 재고시트 가서 재고 올리고 출고되면 또 그거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정신도 없고 근데 ERP 같은 경우는 그냥 BOM 같은 거 정해놓고 거기에 재고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입출고 같은 거 쓰면 그냥 알아서 다 재고 관리까지 한 번에 다 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.

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

에코테크 24:19

그러면 지금 대부분 원재료부터 이제 마지막 제품 출고까지 해서 어떤 플로우 차트 같은 거 갖고 계세요 각 제품별로?

고객사 24:30

그런 건 없어요.

에코테크 24:35

결국은 그러면 레시피로 다 관리하는 거네요?

참석자 2 24:43

예 맞아요.

에코테크 24:45

레시피 안에는 사실 원부재료 투입량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

고객사 24:50

네,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막 1kg 단위로 솔직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..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
에코테크 25:00

공정상의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

고객사 25:03

그렇진 않아요. 거의 교반이 다라고 보면 돼요

에코테크 25:06

믹싱하고 나오는 거 만들어서

고객사 25:09

네네네 저희는 뭐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. 그렇죠 약간 되게 단순한 공정들이에요.

참석자 5 25:15

되게 단순할 것 같아요.

에코테크 25:21

최고인데요. 이 시스템에 네 그러니까요. 아주 적합한

고객사 25:25

그래서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게 핏이 딱 맞아요. 내가 봤을 때

퓨처센스

모바일 시연 후 PC 시연

고객사 30:49

그러면 이거 출고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일반 B2C 개인 소비자한테 나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출고가 된 거를 입력하는 저게 뭐 따로 있나요?

퓨처센스 31:05

네네 저희가 출고 전표를 잡아야 되는데 개인 소비자는 .. 아직 생각 만약 개인 소비자도 거래처라고 본다면

고객사 31:14

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식으로 잡아서

퓨처센스 31:19

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. 네네 그렇게 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컨셉이 모든 입출고별로 양이랑 비용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제품 수불부에서 입고관리에서는 생산량이랑 로스 비용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는 제조 원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

고객사 31:41

그러면 아까 그 로스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대 1 대 1 비율로 이제 만드는 게 하나가 나오는데

📤 티(디)바인